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 옥천군과 청산면 사례

소멸되어 가는 지역농촌, 커뮤니티저널리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단법인 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

‘시골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와 유출로 인한 폐교 위기는 몇 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공립형 기숙학교를 세우는 것이 대안이다.’ 학생을 유치해서 관계인구를 늘여야 한다는 말들은 사실 학계에서나 교육행정계 통에서도 굳이 연구 따위를 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정책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그런 시도들이 있어왔고 실행이 되었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순식간에 지역의 학교가 없어졌고 2개 또는 3개 학교가 폐교를 하며 한쪽에 예산 몰아주기를 한다. 비까뻑쩍한 학교 시설 새로 지어주고 기숙사를 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체적으로 이렇게 멋진 학교를 만들었다고 '과시'를 하기도 한다. 일단 좋은 시설에 혹하게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인한다. 그래서 사실 '학생몰이'를 한다. '다 같이 죽느니 한놈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리가 먹히는 것이다.

일단 폐교된 학교에서는 중, 고등학생들 볼일이 없어진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다. 폐교된 학교 뿐만 아니라 기숙형 학교도 학교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니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알턱이 없다. 학교는 지역의 섬이 될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학교가 지역에 주소를 둔다 뿐이지 지역안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입이라는 커다란 목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제 지근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버스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폐교되었고, 또 기숙형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꼭 기숙형 학교가 아니더라도 면지역 고등학교의 운명은 서글프다. 읍내에서 인문계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거나 내신을 높게 받으려고 선택하며 정원이 열추 채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면 지역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들어갈 정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밀리면 타지역으로 학교

를 지원하는 수 밖에 없다. 눈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도 못 가는 현실이 당도한다는 것이다.

피해의식과 자존감 하락은 면단위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사실 정서적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 면에는 없는게 너무 많아’, ‘우리 면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유로운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아’,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 ‘얼른 대학가서 다른 곳으로 취업해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도시와 서울과 세계의 화려함이 이를 더 부추긴다. ‘멋짐’과 ‘플렉스’하는 삶을 숭상하게 만들고 자장처럼 그리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계성이 축소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하루빨리 ‘엑소더스’하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것이다. 피해의식은 전이된다. 자존감을 하락하게 만든 지역에게로 말이다. 그래서 지역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끝내는 배반하는 전철을 밟게 된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다시 지역을 찾는 것이 드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때론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것이 발전가능성 없는 정체로 이어지고 더 쇠퇴할 때 그리워했던 감정조차 떨궈버리게 된다.

성장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계망들은 좀 더 소거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오롯이 가족만 남게 되어 명절 때만 찾는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역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남아있는 것이 특이한 사례로 역전된 지는 오래됐다.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규모의 효율성과 관료제는 면단위를 점점 더 고사시키고 있다. 지역이 열악해지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불편함이 커지고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옥죄게 된다.

왜 커뮤니티 저널리즘인가?

군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더 천착하는 이유는 바로 생활형 공간이기 때문이다. 군 단위만 넘어가도 군수와 관료들, 예산 등 체계가 관계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 편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획과 예산 집행 등이 군 단위로 이뤄진다. 이는 결국 읍단위에만 공공인프라가 집중되고 주거인프라와 시장인프라가 같이 맞물리면서 읍은 도시의 형태를 비슷하게 띠게 된다. 그래서 다른 면 단위보다 인구 감소율이 적은 편이고 대부분의 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읍에 모여 산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월세나 전세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면에 있는 친구들도 인간관계의 답답함과 익명성의 자유로움에서 그나마 벗어나고 친숙한 공간에 자리잡으려고 하면 읍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향에 대한 정서적 자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다. 읍이 아니면 인근 도시에 머무는 친구들도 꽤 많다. 면은 사실상 농촌의 기초다. 기본생활권이다. 면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의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절대 인구의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을 살피지 않으면 지역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인구 숫자라도 군내 지역별 인구 균형이 맞춰지고, 노인에 편중되지 않고 청소년, 청년 인구의 균형이 맞춰지면 농촌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맞출까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옥천신문과 사단법인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는 옥천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의 청산면에 진지를 구축했다. 청우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매주 청

산별곡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지 뿐만 아니라 라디오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까지 구축하고 작은 영화관까지 만들어 다양한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여러가지가 의미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을 발화하고 쓰면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 하나와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지역의 섬인 학교에서 끌고 나와 지역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지역의 소수자인 청소년들의 발화가 정책과 사업까지 이어져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면지역을 바꿔보자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

커뮤니티저널리즘은 지역곳곳을 탐색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꾸준히 기사거리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하다. 단지 미디어 관련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곳곳을 탐색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지역에 결핍된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창업할 수 있는 여지도 넓혀주는 것이다. 사실 커뮤니티 저널리즘은 지역 활성화의 가장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이다. 남에게, 외부의 힘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저널리즘이고, 항시 소통하고 공유하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채널을 갖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원천을 새롭게 일구는 것이다.

이미 소멸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땅을 파서 갈라진 수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말의 우물’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토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끊어진 관계를 잇고 몇몇이 독점해 버린 기울어진 공론장을 다시 풀어헤치고 끊임없이 지역의 문제를 파고들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다.

‘유착’이 아닌 ‘밀착’으로, ‘야합’이 아닌 ‘연합’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옥천과 청산의 사례

옥천은 이미 33년 된 옥천신문과 5년 된 월간 옥이네, 생활정보지 오크 등 17년 만에 전국에서 첫 개국을 한 옥천FM공동체라디오 등 여러 매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초 사단법인 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를 만들면서 청소년과 할머니 등 소수자 기자단과 면단위 마을신문을 주간으로 내고 라디오 방송국과 TV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실험을 하고 있다. 또한 옥천저널리즘스쿨을 운영하며 1년 12달 상시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을 확장하여 옥천저널리즘스쿨 청산캠퍼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부에서 청년들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게이트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내에 청년들을 발굴하고 서로 관계성을 충만하게 하며 지역의 청소년들과 연결시키면 끊어진 세대망이 연결된다. 단절된 세대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로 지역의 활기를 도모하는 것이 커뮤니티 저널리즘적 방식이다.

내외부 자원들을 모아내어 만나고 연결시켜 청소년과 청년의 세대를 접합하여 뭉텅이로 도둑맞은 세대들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이다. 이게 활성화되면 문제제시되었던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이 단박에 해결된다. 그리고 같이 의견을 모아내어 결집된 지역 문화 인프라를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창업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 더구나 청산면은 고등학교까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바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튼실히 갖고 언제나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언론과 미디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게 하는 속성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옥천과 청산의 특별한 사례로 남기보다 전국 어느지역에서도 통용 가능한 보편적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면 지역에 공공예산으로 만들어질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이를 받아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의 근육을 키워내는 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 닫혀진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해답과 열쇠가 커뮤니티저널리즘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삶터의 공론장을 만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사단법인 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는 천년고을 청산에서 반짝이는 목소리들을 ‘쭈쭈’ 할 것이다. 미디어 허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사진관, 서점, 빵카페, 로컬푸드식당, 만화카페 등 다양한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낼 생각이다. 더 이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을 대안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하나씩 둘씩 만들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 전국 각 면단위에서 이같은 실험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